

엄정순의 추상: 식물성의 여성적 조형 세계

김 흥희
Kim, Hong-Hee

화가 엄정순의 4번째 개인전이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서미 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그는 선묘로 전면적(all-over) 구성을 만드는 새로운 추상 작품들을 선보였다. 예전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원형, 타원형 등의 유기체적 추상형태들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그 형상들을 둘러치거나 화면을 가로지르던 가느다란 자유 곡선들만이 남아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마치 난무하는 선들의 운동이, 그 에너지가 형상들을 녹여버린 듯이 온통 화면은 선으로 뒤덮이고, 그 휘날리는 선들의 유희가 우리를 새로운 추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사방으로 뻗히는 선들의 그물망이 표면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그 율동감은 중앙부로 응축되는 신비로운 회화적 공간을 창출한다. 표면의 물성과 깊이의 환영이 다투어 부각되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엄정순의 추상적 조형 세계가 펼쳐진다. 엄정순의 화면에서 그렇다고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화면 중앙을 끌어들여가는 소용돌이로부터 원천 또는 생명을 암시하는 핵모양의 씨앗이 솟구치고, 불확정한 공간의 깊이로부터 거대한 꽃잎이 피어난다. 또는 선묘로 뒤엉킨 잔나무가지들이 부유하듯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엄정순은 원, 타원과 같은 과거의 추상적 형태 대신 지금은 씨, 나루, 꽃잎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자연적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자연적 투영이다. 마치 예전 형상을 잠식했던 선적 에너지가 그 힘을 자연으로 환원시키듯, 이제 선은 꽂을 피우고 나무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듯, 엄정순의 근작들은 무제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강한 자연주의적 암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식물성의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

다.

엄정순의 추상은 식물적 특질을 갖는다. 선묘가 식물 형상을 그려낼 뿐 아니라, 섬유질적 선 맛이 영락없이 식물성이다. 머리카락 같이 가느다란 선들이 가닥가닥 헤어져 공중에 날리는가 하면, 그 끊길 듯 말듯한 결들의 엉킴이 밭이 고운 투명망을 조직한다. 기름기 없이 깨끗하고, 풀기없이 흩어지는 그 선들은 섬세하다 못해 연약하기 그지없다. 엄정순의 그림이 여느 추상화와는 다르게 장식적이지도, 표현적이지도 않은 깊은 바로 이러한 선의 식물적 성질, 그 담백함 때문이다. 이렇게 섬세하고 담백한 식물적 특성으로 인하여 엄정순의 조형세계는 여성적 특질을 부여받게되며, 그럼으로써 추상화에서의 여성적 영역이라는 새로운 비평적 가능성을 개진케 한다.

여성미술을 논의할 때, 우리는 무엇이 여성미술의 특징을 만드는지, 그보다 미술 활동에 과연 성의 구별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된다. 더구나 그것이 여성적 담론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명백한 여성주의 미술이 아니고, 또한 여성적 이미지나 환상을 그려내는 형상적 작업이 아닌, 색체와 선으로 내면을 표출하는 추상 작업인 경우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추상적 조형 세계에 남성성에 대비되는 여성성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여성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빛같이 은은하고 선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한 색이 여성적일 수도, 예리한 선이 여성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성적인 것이 어떤 것이고 여성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미와 추에 관한 판단이 그렇듯, 성적 특성에 대한 판별 역시 직관적이다. 그 판단 기준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그가 여성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심각한 여성작가는 여성주의적 사고를 하는 페미니스트가 아닐 수 없다. 의식적 차원에서 페미니스트적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여성적 감수성을 인정하고 여성성에 대한 자긍심으로 작업할 때에 그는 본성적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섬세한 섬유질적 선묘로 유독히 여성적인 식물성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엄정순은 본성적 페미니스트의 구별을 우등/열등, 완전/불완전, 능동/수동, 강렬/나약, 명쾌/애매와 같은 이분법으로 차별화시켰다. 사회적으로 구축된 이러한 규정이 허상이건 진실이건 간에 그것이 하나의 협력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과연 성적 주체와 성적 특성이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남성의 그림은 꼭 남성적이고, 여성의 그림은 반드시 여성적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조안 미첼과 샘프랜시스의 그림을 각각 여성적, 남성적이라고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와는 반대의 경우로, 역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바넷 뉴먼과 마크 로드코를 비교해 보자. 같은 남성화 가라 하더라도 좀더 지적이고 단호한 뉴먼의 추상이 좀더 남성적이라면,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로드코의 추상은 오히려 여성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양성이 잠재해 있고, 개인적인 편차로 코스모스 같이 연약한 남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여성성을 상상할 수도 있으리라. 결국 작품의 성적 특성을 논의함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는 작가의 성에 대한 인식이다. 남성 작가는 그가 남성성이기 때문에 성별을 문제삼지 않는다. 그는 「하나」요 첫째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주의 미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제2의 성」으로서의 여성 작가는 항상 그가 여성이라는 점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말하자면 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그의 실존적 자각은 언제나 그가 여성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심각한 여성작가는 여성주의적 사고를 하는 페미니스트가 아닐 수 없다.

의식적 차원에서 페미니스트적 구호를 외치지 않더라도, 여성적 감수성을 인정하고 여성성에 대한 자긍심으로 작업할 때에 그는 본성적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글쓴이
· 48년생
· 캐나다 콩코디아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 現 동국대 서울여대 인하대 강사

